2026년 11월 기도편지

경의영, 양희윤, 세현, 도현 가족 · 2026년 11월

안녕하세요! 가을의 한가운데를 지나,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편지에서 "지금 이 방식으로 선교를 계속한다면, 한국 선교는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은 그 질문을 붙들고 몇 가지 작은 실험을 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10월 말 부산에서 열린 지피 한국대회, 선교사의 은퇴 준비에 관한 강의, 120여 년 전 내한 선교사들의 기록을 다시 읽는 작업, 그리고 필드노트 앱까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모두 흩어진 개인을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로 잇는 일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피 한국대회 「RE:MEMBER」 — 기억하고, 다시 지체가 되다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브니엘교회에서 2026 지피 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2022년 방콕대회 이후 4년 만에 365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아니라 '흐름'을 기획하다

저는 이번 대회의 기획을 맡았습니다. 기획을 하며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이 기회를 '소중한' 공동체의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40여개국에 흩어진 300여명의 회원, 평균 연령 55.8세, 넓어진 세대의 폭, 그리고 나흘이라는 한정된 시간. 이런 조건 속에서 나흘이 공동체의 경험으로 남으려면, 무엇을 담을지보다 무엇을 남길지를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한 번의 행사로 보지 않고, 'Pre-대회 → 대회 → Post-대회'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했습니다. 각자 다른 자리에서 온 참가자들이 나흘 동안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시간을 '우리의 경험'으로 함께 품고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기획 내내 붙든 고민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은 한자리에서 함께 겪는 체험 속에서 비로소 새겨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며 배운 것처럼 문화는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고, 그 경험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짧지만 깊었던 세 번의 의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지피 만의 공동체 의례였습니다. 개회예배에서는 1999년 창립 세대가 단상에 오르고, 올해 허입한 회원까지 모두가 창립선언문을 한 구절씩 함께 읽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8년간 한국본부를 섬긴 대표 부부께 공동체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폐회예배 성찬 후에는 이사 전원이 '보내는 자'의 자리에 서고, 참가자 전원이 일어서 응답하는 재파송식을 가졌습니다. 파송이 개인의 결단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보내는 일임을, 보내는 자와 보냄받는 자가 서로 마주 보며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외부의 시선으로 '우리'를 다시 읽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김종구 소장(한국성격검사연구소)은 기질의 차이를, 홍주은 대표(체인지스트앤코)는 세대에 대한 이해와 조직문화의 관성을 따뜻하면서도 솔직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내부에서 꺼내면 상처가 되고, 침묵하면 반복되는 주제들이었습니다. 두 강의가 부드럽게 서로를 이해하도록 이끌었고, 이런 인식은 의례 속에서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와 선교회가 함께 만든 나흘

이번 대회는 브니엘교회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담임목사님을 비롯해 약 100명의 성도님들이 시설 전체를 내어 주시고, 식사와 찬양, 셔틀, 선교사 자녀 프로그램, 12개 코스의 아웃팅 답사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선교회는 대회의 내용과 흐름을, 교회는 현장과 환대를 맡았습니다. 서로가 간섭이 되거나 누구 하나가 주체가 되고 다른 이는 객체가 되는 방식이 아닌, 협업으로 하나의 일을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것, 보내는 교회와 보냄받은 선교사가 한자리에서 서로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번 대회가 남긴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숙소를 후원해 주신 이사님, 그리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회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 과정에서 그동안 지피 안에 쌓여 온 관행과 일하는 방식, 태도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드러났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은 바꿀 수 없으니까요. 대회 평가, 세대별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의 정리, 새 리더십으로의 인수인계까지, 부산에서 함께 확인한 기억이 지피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Post-대회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가 소식지에 썼던 문장을 다시 붙듭니다.

> "기억이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향수(nostalgia)에 그칩니다."

> 🙏 대회에서 함께 확인한 기억과 결단이 일상의 공동체 문화로 이어지도록, Post-대회 과정과 새 리더십 체제가 지혜롭게 세워지도록

선교사의 은퇴, 누가 준비하나요?

대회 기간 중 선택특강으로 '선교사의 은퇴 준비와 개인연금 활용'을 맡아 강의했습니다. 조금은 낯선 주제일 수 있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보험'이라는 노후 준비가 제도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에는 대개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선교사는 근로자나 직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피 안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있고, 가입했더라도 예상 수령액이 월 6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고요. 게다가 종교인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차상위나 각종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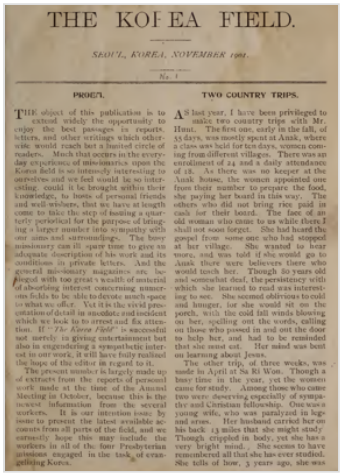
결국 노후는 여전히 '각자도생'으로 남아 있고, 소액이라도 개인 저축이나 개인연금으로 장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이들어서도 '후원'에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선교사들은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금융과 제도에 대해서 조차 거의 문외한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씩 알아가며, 선교사가 최소한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강의도 개인연금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투자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투기가 아닌 장기적인 청지기의 관점에서, 정직하게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설문에서도 은퇴·노후 재정 강좌가 '삶과 사역에 바로 쓸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 감사했습니다.

> 🙏 선교사들의 노후가 개인의 몫으로만 남지 않고, 선교회와 교회가 함께 고민하는 구조로 나아가도록

120년 전 선교사들의 기록을 다시 읽다

지난 편지에서 나눈 '한국기독교 기록문화 유산발굴' 사업, 내한 선교사와 관련된 150개 교회의 스토리텔링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며, 흩어진 사건과 사람과 상황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데 AI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한 자료를 만났습니다. 1901년 「The Korea Field」로 시작해 이후 「The Korea Mission Field」로 이름을 바꾸어 발행된 선교 저널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생생한 기록과 조선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THE KOREA FIELD.

SEOUL, KOREA, NOVEMBER 1901.

No. 1

PROSPECTUS.

THE object of this publication is to extend widely the opportunity to enjoy the best passages in reports, letters, and other writings which otherwise would reach but a limited circle of readers. Much that occurs in the everyday experiences of missionaries upon the Korea field is so intensely interesting to ourselves and we feel would be so interesting, could it be brought within their knowledge, to hosts of personal friends and well-wishers, that we have at length come to take the step of issuing a quarterly periodical for the purpose of bringing a larger number into sympathy with our aims and surroundings. The busy missionary can ill spare time to give an adequate description of his work and its conditions in private letters. And the general missionary magazines are burdened with too great wealth of material of absorbing interest concerning numerous fields to be able to devote much space to what we offer. Yet it is the vivid presentation of detail in anecdote and incident which we look to to arrest and fix attention. If "The Korea Field" is successful not merely in giving entertainment but also in engendering a sympathetic interest in our work, it will have fully realized the hope of the editor in regard to it.

The present number is largely made up of extracts from the reports of personal work made at the time of the Annual Meeting in October, because this is the newest information from the several workers. It is our intention to issue to present the latest available accounts from all parts of the field, and we earnestly hope this may include the workers in all of the four Presbyterian missions engaged in the task of evangelizing Korea.

TWO COUNTRY TRIPS.

At last year, I have been privileged to make two country trips with Mr. Hunt. The first one, early in the fall, of 55 days, was mostly spent at Anak, where a class was held for ten days, women coming from different villages. There was an enrollment of 24 and a daily attendance of 18. As there was no keeper at the Anak house, the women appointed one from their number to prepare the food, she paying her board in this way. The others who did not bring rice paid in cash for their board. The face of an old woman who came to us while there I shall not soon forget. She had heard the gospel from some one who had stopped at her village. She wanted to hear more, and was told if she would go to Anak there were believers there who would teach her. Though 80 years old and somewhat deaf, the persistency with which she learned to read was interesting to see. She seemed oblivious to cold and hunger, for she would sit on the porch, with the cold fall winds blowing on her, spelling out the words, calling on those who passed in and out the door to help her, and had to be reminded that she must eat. Her mind was bent on learning about Jesus.

The other trip, of three weeks, was made in April at Sa Ri Won. Though a busy time in the year, yet the women came for study. Among those who came two were deserving especially of sympathy and Christian fellowship. One was a young wife, who was paralyzed in legs and arms. Her husband carried her on his back 13 miles that she might study. Though crippled in body, yet she has a very bright mind. She seems to have remembered all that she has ever studied. She tells of how, 3 years ago, she was

1909년 2월호에는 청주에 갓 부임한 신임 선교사 에드윈 케이진(Edwin Kagin)의 첫해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순회 중 들른 한 마을에서 믿는 사람은 백정 한 가정과 소년 두 셋 뿐이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어 이웃집 흙방을 빌렸는데, 벽도 바닥도 흙이고 천장에는 거미줄과 곡식 자루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깜박이는 촛불 아래, 한 자 높이의 소반과 투박한 그릇 두 개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낮은 신분이던 백정과 함께한 그 예배가 초대교회의 카타콤을 떠올리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호의 짧은 소식란에는 원산의 하디(R. A. Hardie) 선교사 부부가 다섯 살 난 딸을 갑작스럽게 잃었다는 소식이 몇 줄로 실려 있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바로 그 선교사입니다. 기사는 이 소식이 선교사 공동체 전체에 충격이었다고 전하며,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부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동료들의 진심 어린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입니다. 100년도 전, 조선 땅에서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이 애잔하게 밀려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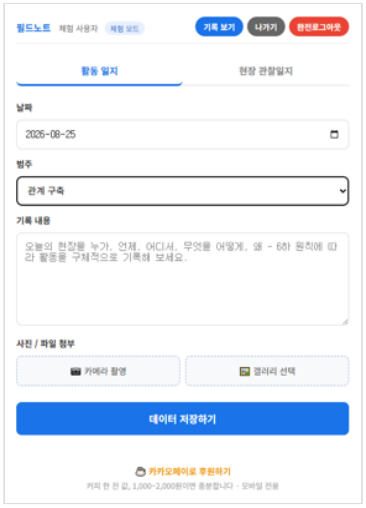
현재 원본 스캔본을 OCR 작업으로 검색 가능한 자료로 만들었고, 앞으로 한글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도 조금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록들을 읽으며 오늘의 한국 선교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수십 년을 섬겨 온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물론 기록은 있습니다. 기도편지와 사역 보고서, 개인의 일지와 사진들. 다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기록들은 개인의 서랍과 컴퓨터를 넘어 공동체의 자산으로 남겨지고 있을까요? 물론 당시 조선과 오늘의 선교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안 문제와 각 나라의 사정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기록도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남겨 두지 않으면 120년 뒤 누군가 읽을 이야기도 없겠습니다. 이것이 지피 아카이브가 준비해야 할 다음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기록이 잘 정리되고 한글로 번역되어, 오늘의 한국 선교를 비추는 거울이 되도록

필드노트 — '한국형' 기록 도구를 향해

올해 초 IMB의 GAPP 세미나를 소개하며,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한국형'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고민에서 나온 것이 필드노트 앱입니다.





[필드노트]는 단순합니다. 기록의 주인은 선교사 개인이기에 데이터 주권을 개인에게 두고, 대신 그 기록이 흩어지지 않고 쌓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쌓인 기록은 이후 보고서, 아카이브, 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앞서 나눈 120년 전 선교사들의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듯이 말입니다. 장기 선교사뿐 아니라 교회의 단기선교팀도 현장에서 보고 듣고 만난 것을 함께 기록하고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과 활용 방법은 아래 링크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드노트]는 지금도 앱 파일을 직접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쓸 수 있도록 공적인 지위를 갖추고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데, 심사에서 '추가 테스트 필요'로 여러 차례 반려되었습니다. 12명 이상의 테스터가 2주 동안 앱을 실제로 사용하고 의견을 남겨야 하는데, 참여 신청은 12명을 넘었지만 매일 사용해 주시는 분들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개발하는 일보다 '함께 써 줄 사람'을 모으는 일이 더 어렵네요. ^^

안드로이드폰을 쓰시는 분 중 2주간 테스트에 참여해 주실 분은 제 카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 필드노트 사용 안내: https://joshuakyung.github.io/FieldNote/

> 🙏 필드노트가 무사히 출시되어, 현장 선교사들의 기록을 지키고 이어가는 도구가 되도록

가정 소식

지난 8월 출국한 둘째 도현이는 기숙사에서 잘 지내며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대 후 오랜만에 학업으로 돌아가 다시 적응하며 전공을 배우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열역학, 유체역학…

'너의 아빠는 이 문턱을 못넘었는데... 너는 잘 하길 바란다'

라고 격려? 했지요. ^^ 그나저나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이제는 AI보다 못한 상황이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 도현이가 새 학기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온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서로를 응원할 수 있도록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지피 대회에서 함께 확인한 기억과 결단이 공동체 문화로 이어지도록, Post-대회 과정과 새 리더십 체제가 지혜롭게 세워지도록
- 대회를 섬겨 준 브니엘교회와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함께하도록
- 선교사들의 노후가 개인의 몫으로만 남지 않고, 선교회와 교회가 함께 고민하는 구조로 나아가도록
- 초기 선교사들의 기록이 잘 정리·한글화되고, 지피 아카이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 필드노트가 무사히 출시되어 현장의 기록을 지키는 도구가 되도록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이끄는 공동체 GLOBAL PARTNERS

글로벌 파트너스는 세계 40여개국 419명이(2026년 기준) 활동하는 한국 자생 선교단체로, 장.단기 선교사 / 실버선교사 / 협력선교사 등의 제도를 통해 선교 동원과 파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38-200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77-3 /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8길 17(문정동)

TEL 02-443-0883 / FAX 02-443-0449 / EMAIL info@gpkorea.org | https://gpinternational.org/

연락처 : 010-5853-5561 / 이메일 : joshuakyung@gmail.com

후원하시려면 : 1) 죠이선교회를 통해서 → https://forms.gle/jV4rdjhGxwuVeuok7 2) 990-090820-773 GP(경의영) KEB하나은행